



[산업] 기아車·르노삼성 신형 SUV 공공행진 성능甲 소렌토, 가격매력 XM3 08



Life

[바이오] 강스텝바이오텍 아토피졸기세포 재도전 L2



난치환아 돕고 대리점과 상생... 남양 키워드는 '인간존중'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남양유업

뇌전증 환아 위한 '케토니아' 제조
미숙아·저체중아 위한 특수분유 공급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힘써
임신기 휴직 등 다양한 복지제도

상생회의 개최해 애로사항 개선
협력사 위한 자금 운용 지원도



1 48번째 이어온 남양유업 임신육아교실. 2 지난해 12월 개최된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3 난치성 뇌전증 환아들을 위한 케토니아 제품. 4 남양의 '진심' 알리기 위해 오픈한 남양유업 뉴스룸. /남양유업

“고객만족·인간존중·사회봉사”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인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남양유업의 기업이념이다. 남양유업은 '고객만족·인간존중·사회봉사'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임직원들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 업(業)의 특성에 맞게 특수분유 생산, 임신육아교실 운영, 대리점 가정 대상 출산장려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난치 환아를 위한 제품, '남양 케토니아'

남양유업은 난치성 뇌전증 환아들을 위한 제품 '케토니아'를 제조하고 있다. 케토니아는 남양유업 연구진이 연세대학교 김흥동 교수, 인제대학교 김동욱 교수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케톤 생성식이이다.

뇌전증은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이 소실되거나 행동이 변화하는 등 발작 증상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케톤 생성식이요법 등이 있다.

이중 케톤 생성식이요법은 버터, 마요네즈, 참기름 등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는식이요법이다. 이식이요법 시 환아의 거부감과 구토, 설사 등을 일으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케토니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난치성 뇌전증의 발작 증세를 멈추고 장기적인 치료를 돕는 '케톤생성식이요법'을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남양유업은 불확실한 시장규모와 저조한 매출, 막대한 연구비와 설비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난치성 뇌전증 환아를 위해 케토니아를 개발했다. 이후 16년간 누적 106만 개를 생산해 특수 의료용도 식품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위한 '미숙아분유', 알레르기성 질환 및 설사 등으로 고통받는 아기들을 위한 'XO 닥터', 'XO 알레기' 등 특수분유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 여성 친화 기업을 위한 노력

1964년 창립 이래 분유, 우유 등 유아식을 모태로 성장해온 남양유업은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깃든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양유업은 '모성보호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에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직 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갖췄다.

또 ▲48번째 이어온 남양분유 임신육아교실 ▲특수 의료 용도 식품 개발 및 보급 ▲특수 분유 생산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태교음악회 ▲다문화가정 후원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세종시가 주최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여성 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대리점과의 상생, 소비자와의 소통

남양유업은 2013년 유업계 최초로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대표이사, 임직원, 전국 대리점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상생·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회의기구다. 남양유업은 상생 회의에서 대리점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분기별 논의의 안건을 개선해 영업정책에 반영해오고 있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모범적인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8년 7월부터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상생 결재 시스템을 전면 도입·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지난 2019년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에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를 해소하고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양의 '진심'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스룸을 오픈하고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잘못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철저히 개선해 상생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고객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 더 낮은 자세로 고객을 위해 소통하고 대리점주와 선진 상생 모델을 선도하며 일등품질의 정직한 제품을 선보이는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